

AUTHOR 박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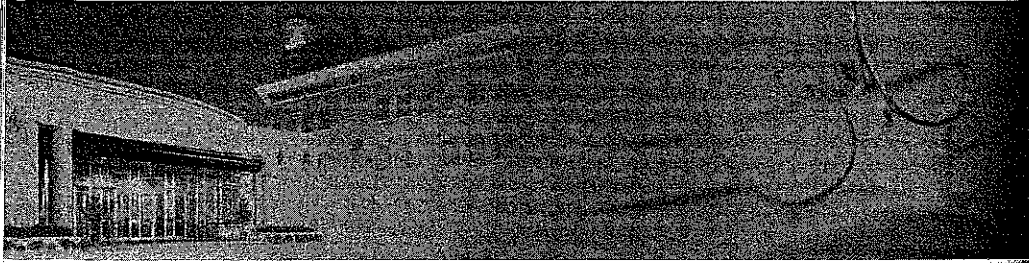
TITLE 칼뱅의 국가론

IN 교회와 신학

vol.67 (Winter, 2006): 146-154

##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술대회 지상중계

### Academic Conferences and Seminars at PCTS



#### 제4회 종교개혁기념 학술강좌

주 제 \_ 개혁교회의 국가관

일 시 \_ 2006년 10월 26일(목) 오후 1시

장 소 \_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

주 관 \_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칼뱅의 국가론

- 박경수 교수(장신대 · 역사신학)

칼뱅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가정, 이웃, 교육, 문화, 사업 정치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기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그만큼 당시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을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다룬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관심에 중요성을 더했다.

칼뱅은 교회와 국가는 결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 백성들의 종교적이며 세속적인 필요에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긴밀히 상호 작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교회와 국가를 혼합하여 국가를 단지 교회에 종속되는 기구로만 취급하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과 국가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무정부적인 성향을 지닌 급진주의적 제세례파들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그가 신자들의 으뜸가는 덕목으로 말하는 중용의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 상호연관성을 지닌 하나님의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가보다 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고 국가는 사단에 속한 것으로 양분화시키는' 제세례파의 견해와는 달리, 칼뱅은 국가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루터도 동일한 입장이었지만, 칼뱅은 루터보다 국가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또한 국가에 더 많은 긍정적 가치와 적극적 역할을 부여했다.

칼뱅은 인간의 죄로 인해 사회가 혼란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국가는 인간의 불법과 타락의 결과로 인해 초래될 무질서와 혼돈을 막기 위한 정의의 질서인 것이다. 그러나 칼뱅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가 단지 인간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정령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국가는 그 기원과 권위에 있어서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면, 국가의 통치자들은 곧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다. 세상의 통치자는 지상의 질서를 위해 임명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비록 악한 통치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칼뱅은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는 크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정치적 임무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경건의 공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종교적 임무가 그것이다. 이 때 칼뱅이 초점한 것은 국가 그 자체 보다는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국가를 보았으며, 정치적 임무보다는 종교적 임무에 더욱 관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의 최우선의 관심은 경건이 되어야 했

다. 칼뱅은 국가 통치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임무와 종교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당한 권리들이 있음을 주장하는데, 무력 사용의 권한과, 전쟁의 수행 권한, 세금 징수 권한이 그것이다.

칼뱅은 왕정이든, 귀족적이든 민주정이든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통치형태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통치형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칼뱅은 왕이나 군주가 혼자서 다스리는 통치형태보다는 귀족정치 혹은 귀족정치와 민주정치를 혼합한 형태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비추었다.

칼뱅이 왕정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치의 원리가 나빠서라기 보다, 그 제도가 쉽게 독재적인 남용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뱅의 제네바도 국가와 교회 안에서의 권력 행사가 모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칼뱅 역시 여러 사람에 의한 통치가 더욱 안전하고 좋은 제도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민주정치에 근접하는 귀족정치를 이상적인 통치형태로 암시하고 있고, 자유가 적절한 형태로 통제되는 통치형태가 가장 행복하다고 역설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맥닐의 말처럼 칼뱅은 보수적인 성격을 띠는 민주정치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질서의 회복을 무엇보다 중시한 칼뱅은 질서잡힌 사회가 되기 위해 양극단을 피하고 중용의 자세를 선택하는 절제의 덕을 강조했다.

또한 칼뱅은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리 악한 통치자들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들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명할 경우에는 그 권한에 저항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친다. 칼뱅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단언한다. 국가통치자의 권한은 절대적 권위자인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되는 조건적 권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칼뱅의 국가론은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에 종립적이고 세속적 성격을 지닌 자율적 실체라는 현대적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시대 상황 안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종교 개혁자로서 존 녹스의 계약사상과 국가관에 관한 연구

- 김철영 교수(장신대 · 기독교와 문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녹스는, 참된 교회로서의 개혁 의지 속에 지상교회와 무형교회의 공존을 직접 몸으로 실천한 유일무이한 종교개혁자일 것이다. 존 녹스의 종교 개혁의 중심에 스코틀랜드와의 관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제임스 5세의 통치 초기인 1515년 히딩톤 근처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존 녹스는 부모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으나, 지체있는 오랜 가문의 후손으로 녹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로 이해된다.

녹스는 그 당시 유럽의 석학 중의 하나인 존 메이저 아래서 수학했으며, 1536년 4월 15일 22세의 나이로 던발레인의 주교 치숨에 의해 사제로 임명을 받는다. 당시 로디안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펼치고 있던 조지 위사트가 비튼 추기경의 음모로 화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두 세달 후 비튼 추기경과 성 앤드류스 주교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녹스는 위사트와의 관계 때문에 혐의자로 지목을 받아 성 앤드류스 성으로 피신하게 된다. 이 곳에서 녹스는 개신교에 대한 열정과 신학적 재능 등으로 그 곳 개신교도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존 러프에 의해 정식으로 목사직을 임명받는다.

한 때 성 앤드류스 성이 프랑스에 의해 함락되어 19개월동안 노예생활을 하지만, 헨리 8세의 뒤를 이은 에드워드 6세의 중재로, 녹스와 그 일행들은 석방된다. 녹스는 당시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힘쓰고 있는 크랜머 대주교를 도와서 일반기도서를 개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 곳 지도자들과 함께 유력한 지도자가 된다.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호의적이던 에드워드 6세가 서거하고 열렬한 가톨릭 신

자인 메리 튜더가 왕위에 오르자, 녹스는 잠시 제네바에 머물면서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을 접하게 되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운동과 정부 형태를 스코트랜드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꿈을 키운다.

그리고 얼마후 가톨릭을 지지하는 섭정 여왕 메리의 등극으로 녹스는 스코트랜드의 종교개혁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정치 종교적 관점에서 철저히 프랑스로부터 메리 여왕은 외국 군대를 나라 안에 끌어들여 왕국을 억압하고 노예화하려는 시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스코트랜드 의회는 교황의 지배권 폐지와 미사거행 금지 개혁신앙에 반대하여 만들어진 모든 법률 폐기 등을 감행하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한 설교'와 '성례의 올바른 시행' 그리고 '정당하게 시행되는 치리'라는 내용의 스코트랜드 신앙고백서를 스코트랜드의 유일한 신앙진술로 천명한다.

그러나 섭정 여왕 메리가 서거하고 그녀의 딸 스코트랜드 여왕 메리가 다시 돌아오면서 스코트랜드 전역에 미사를 공개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녹스의 종교개혁운동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해서 녹스의 종교개혁운동은 당시 스코트랜드가 처한 정치적 현실과 인접한 관련성을 띄게 된다.

스코트랜드의 종교개혁과 부흥을 위한 개혁자요 설교가였던 녹스는 계약교리를 신학적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론으로서 명백하게 발전시켰다. 칼빈의 신학 사상에 크게 의존하였던 녹스는 그러나 칼빈이 제네바에서 수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칼빈의 정치적 이념을 실행에 옮겼다. 녹스는 구약성서의 계약교리에 기초하고 스코트랜드의 계약사상의 전통과도 연계하여 스코트랜드에 평민들까지도 정부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는 계약화된 국가를 설립하려고 하였다.

녹스의 종교개혁운동은 메리 튜더의 박해가 더욱 심해지면서 자신이 처한 영국의 종교개혁의 위기 앞에서 더욱 역사적 현실에 주목하여 해석학적 및 신학적 계약사상의 이론적 성향에서 점차 실천적 및 의지적인 정치 신학적 계약사상으로 대전환을 향해 가기 시작한다.

그러하여 녹스는 백성들은 나라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실되게 설교되도록 감시할 뿐만 아니라 바른 통치자와 정당한 신앙의 요구와 함께 독재자들의 횡포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종교개혁을 통해 스코트랜드는 공식적으로

개신교 국가가 되었고, 계약화된 국가가 되었다.

녹스의 국가관은 칼빈의 국가관의 영향을 받았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4권에서 국가를 제도적 국가, 선거를 통해 관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편, 하나님의 주권 사상 속에 내적인 정신을 규제하는 영적인 정부와,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정치적 정부라는 두 왕국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칼빈의 입장은 녹스가 처하고 있는 스코트랜드의 상황과는 달리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녹스의 종교개혁운동 앞에는 그것을 권력을 통해 방해하려는 왕권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계약사상에 의거하여 국가의 통치자인 왕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왕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 역시 백성의 의무가 기본적으로 복종이라고 보았지만, 그것은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관리의 신분과 직책이 존경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1559년 호소문에서 교회와 국가는 상호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스는 성서의 계약사상과 칼빈의 은혜의 계약사상, 그리고 스코트랜드 전래의 충성서약에 뿌리를 둔 계약사상에 근거하여, 국가와 교회가 신의 법 아래에 있다는 전제 아래 국가가 교회의 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반자로 간주했으며, 인간의 무질서한 사회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제도로 보았다.

## 개혁전통에서의 국가론

- 최윤배 교수(장신대 · 조직신학)

개혁전통에서의 국가론을 이해하기 앞서 개혁전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혁전통을 한 마디로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개혁전통의 근원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반동종교개혁 운동과 좌파적 급진적 종교개혁 운동 외에도 독일 중북부의 루터 중심의 종교개혁 운동과 독일 남

부와 스위스 중심의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던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독일 중북부의 종교개혁은 오늘날 루터교회 전통으로 계승되었고, 독일 남부와 스위스 중심의 종교 개혁은 칼뱅과 베자를 거쳐, 개혁교회로 명명되고 계승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장로교회로 명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6세기의 개혁전통은 17세기의 개혁과 정통주의나 칭교도주의 및 개혁과 경건주의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18,19세기의 슬라이어마허를 거쳐서, 20,21세기 초의 현대개혁신학자 바르트나 몰트만 등을 비롯하여, 현재 세계 도처에 개혁교회의 신학과 삶이 500여년의 전통 속에 빛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속의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라는 목표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개혁될 것을 추구한다.

#### 고전개혁전통에서의 국가

우선 개혁과 종교개혁자 쾰빙글리의 국가이해를 살펴보면,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하나의 동일한 공동체이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교역자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관료의 역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당시 외세의 침입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 있었던 쾰빙글리의 지대한 관심은 스위스라는 독립국가의 기초를 형성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시민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쾰빙글리의 경우, 교회와 국가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국가의 삶과 교회의 삶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

또한, 부처와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두 나라, 즉 교회와 국가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부처의 경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이며,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며, 사람과 수단을 사용하신다. 이 때 사람은 교회 안의 모든 신자와 직분자들, 그리고 정부 안의 모든 시민과 공직자들을 의미하며, 수단은 교회 안의 말씀 선포와 성례전과 치리를 의미하고, 정부 안의 법규들을 의미한다.

칼뱅의 경우, 제대바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교회와의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해 이중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는 경건과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영적인

통치와 다른 하나는 인간 혹은 시민으로서 사람 사이에 유지해야 할 여러 가지의 무를 배우는 사회적 통치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통치자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통치자의 모든 명령이나 주권이 하나님의 위임에 굴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대 개혁전통에서의 국가

칼 바르트의 국가관은 『로마서 주석』의 로마서 13:1-7에 대한 자신의 주석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비혁명적은 참된 혁명을 위한 최선의 준비라고 말할 정도로 혁명적 태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 나치즘에 항거하는, 바르멘 신학선언에서는 잘못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나 있다.

바르트의 교회론과 국가론에 관해서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공동체와 시민공동체』라는 그의 저서가 도움이 된다. 그는 교회와 국가의 도식을 동심원 구조로 이해하여, 내원은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으며, 외원은 국가로 외적이고, 상대적이며 잠정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는 이미 내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바르트는 교회와 국가의 서로 다른 기능을 말하면서도, 유비 이론을 통해 서로 관련시킨다.

에밀 브룬너는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와 법을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간접 통치의 구분을 선호하며 고전적 개혁신학 전통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크라우스는 정치 영역과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며,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따름으로써, 모든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침투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하며, 모든 지역과 나라들을 혁신하고 세계 완성의 목표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정치활동”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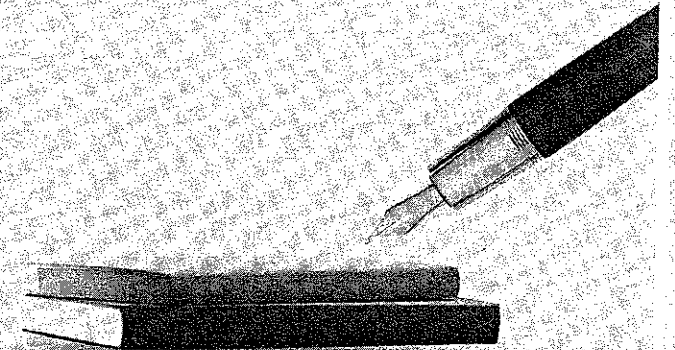
몰트만의 정치신학에 대한 기본관점은 『정치신학, 정치윤리』라는 그의 저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사건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속왕국으로부터 격리된 종교적 통치가 아니라, 이 세상 한 가운데서 현화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통치이다.

소위 신칼빈주의자 라인홀드 니버는 정의와 자유에 대한 인간의 가능성과 불가

능성으로 나누면서 인간은 선을 추구할 수도 있는 존재인 동시에 선을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그는 무간섭에서 무질서로 이어지는 극단적 낙관주의와, 지나친 압제에서 독재로 이어지는 극단적 비판주의를 배격하며, 무질서와 독재주의의 양극단을 피하여, 건전한 민주주의를 설정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또한 기독교는 사회에서 권력의 균형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인 견제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고백하는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신앙고백서」에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에 지상국가의 법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지상국가의 존립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탈할 때, 성경적인 모든 방법으로 항거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지상국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그리고 정당전쟁일 경우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의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개혁전통에서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기관이며,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려지도록 선한 모든 일에 협력해야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탈할 경우, 성경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서 비판하고 저항해야 한다.



# 목회자를 위한 정보매당 Information for Minister

- 개혁교회의 역사와 신학 \_ 최윤배
- 고전 수사학에 관한 책 3권 \_ 안용성
- 구약성경과 선교 - 이방의 빛 이스라엘 \_ 이범성
- 성경의 레노베이션을 꿈꾸는 성경적 선교의 원리와 실제 \_ 김현애
- 출판사 소개 나침반출판사 \_ 김병규
- 교회 소개 나섬교회 \_ 유해근
- 인터넷 소개 선교자를 위한 뉴스 스크랩 \_ 황인돈